

碩 士 學 位 論 文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 공간, 관계양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文 好 淑

2006年 8月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 론

- 공간, 관계양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文 好 淑

文好淑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8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공간, 관계양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

문 호 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난 희



동양에서 세 번째 노벨 문학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행동하는 지식인 작가답게 전후 민주주의 세대의 문학계를 걸머지고, 놀랄만한 지적편력과 넘치는 시적 상상력으로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출해 왔다.

본 연구는 태평양 전쟁을 경험한 오에가 ‘전후 세대 작가’라는 의식 하에서 쓴 『사육』을 ‘작품의 공간’과 ‘주체와 관계의 양상’, ‘이미지로서의 감금과 공생’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작품의 공간’을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코쿠 서남부의 숲이 우거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에는 유년시절의 환경과 자신이 겪은 전쟁을 여러 작품의 주요 소재로 쓰고 있다. 이는 『사육』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에의 유년시절 환경은 『사육』안에서 ‘숲’, ‘산촌’과 ‘읍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가 10살에 경험한 패전은 전쟁의 황폐함을 아이들의 시각으로 그려냄으로서 심리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다.

관계 양상에서는 흑인 병사의 등장과 함께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흑인 병사’, ‘서기’라는 여러 관계들과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시점인물인 ‘나’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 대가이고, 이러한 대가는 부산물로서 관계의 변질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전쟁과 전쟁이 초래한 상흔들을 순진무구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전함으로서 오에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더 참혹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로서의 ‘감금’과 ‘공생’에서는 오에가 동경대학 졸업 논문으로 ‘사르트르 소설의 이미지에 관하여’를 쓴 바 있어, 오에 문학에서 이미지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살펴보았다. ‘감금’의 이미지는 폐쇄된 산촌 마을 안에 폐쇄된 개인이라는 이중적 세계를 통해 살펴보았고, ‘공생’의 이미지는 좁게는 소외된 산촌 마을 구성원들끼리의 공생을, 넓게는 인종을 뛰어 넘어 범인류적인 공생을 『사육』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 이전의 한 공동체로서, 일본작가이기 이전에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오에의 반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 목 차 >

| | |
|------------------------|----|
| 국문초록 | i |
| I. 서론 | 1 |
| II. 작품의 공간 | 6 |
| 2-1. 물리적 공간 | 6 |
| 2-2. 심리적 공간 | 10 |
| III. 주체와 관계의 양상 | 19 |
| 3-1. 나와 마을 사람들 | 19 |
| 3-2. 나와 흑인 병사 | 26 |
| 3-3. 나와 서기 | 37 |
| IV. 이미지로서 감금과 공생 | 45 |
| 4-1. 감금의 이미지 | 46 |
| 4-2. 공생의 이미지 | 50 |
| V. 결론 | 56 |
| 참고문헌 | 59 |
| Abstract | 61 |

I. 서론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1935~이하 오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동양에서는 세 번째 수상 작가이다.¹⁾

1935년 시코쿠의 에히메현(愛媛県)에서 일곱 형제 중 삼남으로 태어난 오에는 어렸을 적부터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다. 오에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데는 큰 형 오에 쇼타로(大江昭太郎)의 영향이 컸는데, 그는 하이쿠를 즐겨 읊기도 하고 가집을 수집하는 등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가끔씩 책방에서 번역소설을 주문하여 동생 오에에게 주기도 하였는데, 이렇듯 오에는 큰 형이 애호한 하이쿠 책으로부터 문학적 분위기를 접하기 시작한다. 14살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통해 인간내면의 심오한 깊이를 깨닫게 되는 한편, 단테에서 라블레를 거쳐 예이츠와 T·S 엘리엇,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독서 편력을 보인다²⁾. 이러한 풍부한 독서 경험은 타고난 상상력과 더불어 오에가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6년 동경대학 불문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작가의 사상적 뿌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듬해인 1957년 대학 신문에 ‘개 도살’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다룬 『기묘한 일(奇妙な仕事)』을 발표하고, 동경대학 ‘오월제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재학시절부터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미시마 유

1)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1968년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1994년에 각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 오상원 · 김세환 역, 오에 겐자부로 저, 『사육 · 짓밟히는 싹들』, 신구미디어, 1994. 후기

키오(三島由紀夫)이래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기묘한 일』은 전후 청년의 허무와 반항을 독창적인 이미지와 문체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958년에는 당시 최연소 나이에 『사육(飼育,1958)』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최초의 장편인 『짓밟히는 싹들(芽むしり仔撃ち)』을 발표하여 문단의 호평과 주목을 받는 신인 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대학 졸업 논문으로 ‘사르트르 소설의 이미지에 관하여’를 쓰게 되는데 이 시기의 오에의 작품 성향은 실존주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유를 억압당한 인간 상태를 감금 상태(한계 상황)로 표현함으로써 실존주의적 모티브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후 세대 작가³⁾로서 10살 때 패전을 경험했던 오에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오늘부터 민주주의야. 똑바로 서서 거짓말 안하고 살면 민주주의이지”라고 말했던 것이 좋아서 민주주의자, 민주적인 인간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오에 앞에 닥친 시대 상황은 일본의 자위대 창설⁴⁾,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 조인⁵⁾, 미소의 핵·군 확장 경쟁 등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대 현실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앞날에 낙관적인 예상을

3) 전후 작가들은 전쟁과 패전의 원체험으로 시작하여 「근대문학」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전후 작가들은 1,2차로 나뉘는데, 1차 작가로는 野間宏, 椎名麟三, 제 2차 작가로는 三島由起夫, 安部公房 등이 있다.

임은규, 『いままでの日本文学史』, 세종출판사, 2004, p.146 참조

4) 무력포기 선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이는 한국전쟁이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1954년 7월1일에는 자위대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군대(military)가 아니라 포스(force)이며, 전력(戦力)이 없는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5)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 9월에 체결된 조약으로 미국의 무제한 무기한 주둔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 편무적 조약이었다. 1960년 1월 기시내각은 안보조약 개정에 착수하여 참의원에 의결 없이 중의원에서 경관을 투입시킨 가운데 여당만의 단독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신안보조약은 일본이 전쟁의 포기를 헌법에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미국과군사상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투 행위에 일본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하여 체결과정에서 일본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고 있던 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고, 이때의 좌절감과 굴욕감은 오에게 하여금 뒷날 반체제적인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1970년대 초반 여러 에세이를 통해 핵시대의 힘의 정치와 3차 대전에 대한 우려 등 미래를 전망하는 데까지 시선을 돌리고 당시 한창 화제가 되었던 솔제니친 석방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 서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 반성을 외치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반대를 위한 「第9条의 모임」⁶⁾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은 그가 스스로 밝힌 전후 민주주의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진보적 지식인 작가로서의 오에는 전후 민주주의 세대의 문학계를 걸머지고, 가공할 지적 편력과 넘치는 시적 상상력으로 독특한 문학세계를 창출해 왔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철학적 주제로 일관해 온 그의 문학은 인간 본원적인 불안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실존 문제로 연결시켜 문학적 지평을 넓혀왔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항상 개인, 사회, 세계에까지 두루 소통되며, 개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허구의 실상을 파헤치는가 하면, 때로는 도시문명에 대한 강력한 탄핵과 정치사회의 질곡에 대한 암유(暗喩)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탁월한 혜안으로 미래를 투시하고 경고하기도 하는데,⁷⁾ 이는 오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한 그의 문학이 세계를 향해 많이 열려 있다는 평가

6) 1945년 패전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국가로 갱생하고자 만든 일본국 헌법으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렇듯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제 9조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임이다.

7) 한국일어일문학회, 『나츠메소세키에서 무라카미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pp.228~229

를 받는 이유도 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인류공존과 희망 등의 글로벌적인 메시지를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에의 문학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선행 연구로 한국의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애아와의 공생을 그린 『개인적 체험(個人的体験)』(1964)이 2006년 현재 총 일곱 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다⁸⁾. 또 『사육』에 대한 선행논문으로는 『사육』 한편만을 다룬 것은 많지 않고 초기 작품군(作品群)으로 묶어 여러 작품이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육』 한 작품만을 다룬 경우는 서술형식이나 작품의 구조, 힘에 논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쟁을 경험한 오에가 ‘전후 세대 작가’라는 의식 하에서 쓴 『사육』을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인 ‘작품의 공간’과 ‘주체와 관계의 양상’, ‘이미지로서 감금과 공생’을 중심으로 고찰해 나감으로서, 다양한 각도로 『사육』을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간에서는 작품 안에서 펼쳐지는 공간을 크게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으로 나누었다. ‘물리적 공간’에서는 오에의 고향 시코쿠의 서남부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산촌마을’과 ‘숲’을 물리적 공간의 범주에 넣었으며, ‘심리적 공간’으로는 차별이라는 소외감의 영역과, 인간 황폐의 상황을 심리적 공간으로 설정했다. 관계 양상에서는 시점인물 ‘나’와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사건을 전개 시키는지 그리고 인간이 관계 속에

8) 2006년 5월 현재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국내 학위 논문 중 ‘오에 겐자부로에 관한 연구’ 논문은 총 20편으로 그 중 7편이 『개인적 체험(個人的体験)』에 관한 논문이다. 이어서 초기 작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명선의 「大江健三郎의 初期作品안에 설정된 荒廃狀況 考察」과 김낙길의 「大江健三郎의 初期作品에 나타난 現實 認識에 대한 考察」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석사 학위 논문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박사 학위 논문은 없는 상태이다.

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미지’에서는 『사육』에 나타난 ‘감금’과 ‘공생’의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데 오에는 동경대학 졸업 논문으로 ‘사르트르 소설의 이미지에 관하여’를 쓴 바 있어, 오에 문학에서 이미지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작품의 공간

바슐라르⁹⁾는 『물과 꿈』에서 인간은 유년기의 체험이 그의 무의식을 지배한다 한다.¹⁰⁾ 이에 따르면 오에 역시 유년기 그가 호홉하고 살았던 산촌 마을의 전경이 그의 문학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에의 초기 여러 작품에는 ‘숲’과 ‘산촌 마을’ 그리고 ‘전쟁’이 일관적인 소재로서 등장한다. 특히 ‘숲’의 경우는 초기 작품인 『짓밟히는 싹들』 뿐만 아니라, 중기의 『만연원년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그 이후의 『동시대게임(同時代ゲーム)』과 『그리운 사람에게로의 편지(懐かしい年への手紙)』 등에서도 작품의 무대로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¹¹⁾ 이는 오에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낸 고향 마을의 이미지가 오에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서 『사육』 안에서도 그려지고 있다.

2-1. 물리적 공간

『사육』의 물리적 공간으로는 읍내 마을(町)과 대립되는 공간으로서 ‘산촌 마을’(村)을 들 수 있다. 먼저 산촌 마을은 시점인물 ‘나’가 살고 있는 곳으로서 읍내 마을과는 단절된 공간이다.

9) G. Bachelard (1884~1962)는 물질적 상상력과 4원소(물, 불, 공기, 흙)의 꿈을 토대로 많은 저술을 했다. 주요 저서로 『물과 꿈』 『촛불의 미학』 『공간의 시학』 등이 있다.

10) 가스통 바슐라르 저, 이가림 옮김,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9, p.17

같은 책 해설, 이가림, 「바슐라르 사상의 넓이와 깊이」-물질적 상상력의 혁명-, pp.279~290
참조

11) 大隈 謙 外, 『大江健三郎研究四国の森と文学的想像力』, リーブル出版, 2004, p.8

우리 산촌 마을에서 노천화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그 해 여름의 지루한 장마 때문이었다. 끈덕지게 계속된 비로 홍수가 일과처럼 되었다. 마을에서 《읍내》로 통하는 지름길에 걸렸던 구름다리를 산사태가 휩쓸어 가버리자 우리 국민학교 분교는 문을 닫았고, 우편물도 끊겼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읍내》에 가야할 경우엔 산등성이를 타고 비탈이 완만한 곳을 찾아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읍내》 화장장까지 시체를 운반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僕らの村で野天の火葬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は、その夏の始まる前の長びいた梅雨、執拗に長い間降りつづけ洪水を日常的にした梅雨のためだった。僕らの村から《町》への近道の釣橋を山崩れが押しつぶすと、僕らの小学校の分教場は閉鎖され、郵便物は停滞し、そして僕らの村の大人たちは、やむをえない時、山の尾根づたいに細く地盤のゆるい道を歩いて《町》へたどりつくのだった。《町》の火葬場へ死者を運ぶことなどは思いもよらない。¹²⁾

이처럼 산촌 마을의 단절은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더 깊은 고립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읍내 마을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던 구름다리가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그 고립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으로 분교는 문을 닫고 우편물은 끊기게 된다. 이는 ‘학교’와 ‘우편물’이라는 국가적 기구의 단절¹³⁾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읍내는 학교와 우편물 등 근대 문명이 위치하고 있는 근대적 공간으로, 산촌 마을은 낡고 미성숙한 개척지의 전근대적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두 공간의 물리적 거리감이 드러난 부분을 더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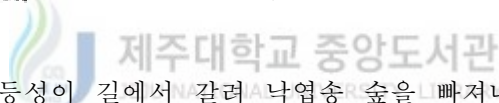
산등성이의 마을길로 나가려고, 연한 토질의 경사진, 발뒤꿈치에 들려 붙는 붉은 진흙의 좁은 길을 지나, 참나무 숲속을 들어가자 우리는 어두운 밤 밑바닥에 있었다. 금속 맛을 입안에 퍼트리며 비처럼 굵은 안개 방울이 내리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안개에 머리칼이 젖고, 옷깃이 때로

1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1

13) 김영은, 「『사육』론 -다양한 힘의 논리 읽기-」, 『日本語文学11』, 2001, p.252

까맣게 번져, 구겨진 셔츠 위에는 하얗게 빛나는 물방울이 엉기어 있었다. 우리는 발뒤꿈치에 부드러운 썩은 낙엽의 바로 밑을 흐르는 맑은 물이 형겁신을 적셔 발을 차갑게 하는 것보다도, 역세게 몰려 자란 양치류의 톱니 같은 줄기에 살갓을 다치지 않도록, 또 집요하게 퍼진 뿌리 사이에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 독사를 성내게 해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발을 조심해야 했다.

尾根の村道へ出るために、柔かい土質の斜面をきりひらいた、足うらに吸いつく赤土の細道を杉林の中へ入って行くと僕らは再び暗い夜の底にいるのだった。金属の味を口腔にひろげる、雨のように大粒の霧がなだれかかり、僕を息苦しくし、髪を濡らし、襟が垢で黒ずみ振れているシャツの毛ばだちに、白く光る水玉を作った。そこで僕らは足うらに柔かい腐った落葉のすぐ下を流れる清水が布靴をとおして足指を凍えさせることよりも、荒あらしく群生した羊歯類の鉄の茎で皮膚を鋭く傷つけられること、その執拗にはりつめた根の間でひっそり眼をひらいている蝮を刺戟して跳びつかれたりしないように気を配らねばならなかった。14)



우리가 산등성이 길에서 갈려 낙엽송 숲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을 때 황혼은 산골짜기를 덮어 버리고 있었으나,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태양의 열기가 남아있어서 불어오는 길은 안개는 상쾌했다.

僕らが尾根づたいの道から離れ杉林をぬけて村の入り口まで降りて来た時、夕暮は谷間をすっかりおおっていたが、僕らの体には陽の熱気がとどこおりつづけていて、吹きあげて来る濃い霧が快かった。15)

위 인용문은 포로로 잡은 흑인병사의 일을 보고도 하고 사냥으로 잡은 족제비 가죽을 팔기도 할 겸 ‘나’가 아버지와 함께 읍내 마을로 가는 길을 묘사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새벽녘에 출발하였으나 읍내에 도착한 것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다. 그러나 읍사무소는 점심시간이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니 이미 황혼

14)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97~98

15) 위의 책 p.103

은 산골짜기를 덮어 버린 뒤가 된다. 이처럼 읍내 마을까지 가는 데는 그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데만 해도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란 인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수렵과 물물교환은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오에의 초기작품에서 현재까지의 작품을 통독하여 ‘문학적 방법’과 ‘전후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표피를 벗겨나가다 보면 그 뿌리에 있는 공통된 감각, 내지는 혈맥 속을 흐르는 사상으로 숲의 사상(森の思想)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이러한 숲의 사상은 물리적 공간의 또 다른 메타포로서 『사육』 안에서도 살펴 볼 수가 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 숲에는 풀 이삭 같은 전나무 꽃이 피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전나무에 들새알 같은 열매가 여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편싸움할 때 무기로 쓰기 위해 따러 가곤 했다. 우리 형제가 사는 창고에도 해질 녘이나 동틀 무렵 동네 아이들이 던지는 그 갈색의 총탄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퍼부어지기도 했다.

僕は知っていた、今その林には草の穂のような樅のはなが開いているはずだった。そして夏の終りには野鳥の卵の形をした毬果が穂のあとに結ばれ、僕らはそれを武器にするために取りに行くのだ。僕の倉庫にも夕暮や夜明けがた、突然激しい音をたてて、その褐色銃弾が撃ちこまれることだろう……¹⁷⁾

이는 흑인병사가 숨어 들어간 숲을 묘사하는 인용문이다. 지금쯤 숲은 전나무 꽃이 만발하여 숨어들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이라는 ‘나’의 상상 속에서 아이들과 전나무 열매로 편싸움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숲 속

16) 黒古一夫, 『大江健三郎-森の思想と行き方の原理』, 彩流社, 1989, p.20

17)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87~88

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전쟁놀이는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암유와 동시에 작품 모두(冒頭)문에 드리워진 ‘가설 화장터’라는 죽음의 이미지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에에게 있어 시코쿠의 ‘숲’은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다. 오에는 시코쿠의 작은 마을인 오세(大瀬)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다가, 보다 큰 도시인 마쓰야마(松山)로 나가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동경 생활로까지 이어지고 현실이 고달플 때마다 오에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 속에서도 영혼의 근원적 안식처인 오세 산하를 회상하곤 한다. 이때부터 시작된 ‘숲’에 관한 특별한 이미지는 오에 문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이를 통해 오에에게 숲이란 영혼의 안식처이자, 마음의 유토피아임을 짐작할 수 있다.

2-2. 심리적 공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앞서 물리적 공간에서는 읍내 마을과 동떨어진 세계로서 산촌 마을을 다루었다. 이 두 마을은 물리적 공간의 그 이질성만큼, 심리적 공간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형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소외와 차별,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감은 전쟁이라는 불안 요소와 더불어 심리적 공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나’가 살고 있는 산촌 마을이 읍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전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읍내》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해서 우리 화전민촌, 낡고 미성숙한 개척마을이 절실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로 부터 더러운 짐승 같은 천대를 받아 왔고, 우리들

은 좁은 산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경사면에 붙은 초라한 부락에서 모든 일상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しかし《町》からすっかり隔絶されてしまうことは僕らの村、古いが未成育な開拓村にとって切実な悩みを引きおこしはしなかった。僕ら、村の人間たちは町で汚ない動物のように嫌がられていたのだし、僕らにとって狭い谷間を見下ろす斜面にかたまっている小さな集落にあらゆる日常がすっぽりつまっていたのだ。18)

오래 전부터 읍내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 더러운 천대는 산촌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감은 읍내 마을로 통하는 지름길인 구름다리가 붕괴됨으로서 더 깊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이 산촌 마을 사람들의 절실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산촌 마을과 읍내가 상부상조하는 공간이라면, 홍수로 인한 단절은 곧 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두 공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읍내 마을과 산촌 마을은 상부상조의 관계가 아닌 차별-피차별의 관계이다. 즉, 산촌 마을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로 부터 짐승 같은 천대를 받으며 소외와 차별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와 차별은 오래된 관습처럼 산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 스스로가 원시 공동체적인 마을을 형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산촌 마을 사람들에게는 홍수로 인한 단절이 절실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외감은 읍내 아이들에 대한 미움과 적의로 표출된다.

《읍내》로 들어가자 나는 아버지의 높은 허리에 어깨를 대고 거리

18)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1

아이들의 도발적인 태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었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돌을 던졌을 것이다. 나는 읍내 아이들을 결코 친해질리 없는 굼벙이처럼 싫어하고 경멸하고 있었다. 《읍내》에 넘쳐흐르는 정오의 햇빛 속에서 깡마르고 음험한 눈을 한 아이들. 어두운 상점 안쪽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어른들의 눈만 없었다면 나는 그 아이들 누구라도 때려눕힐 자신이 있었다.

《町》へ入ると僕は父の高い腰に肩を押しつけ、街路の子供たちの挑発には眼もくれないで歩いた。父がいなかったら、それらの子供たちは僕をはやしたて石を投げつけただろう。僕は町の子供たちを決してなじめない形をして地虫のある種に対してのように嫌っていた軽蔑してもいた。《町》にあふれる正午の光のなかの、覆せて陰険な眼をした子供たち。暗い店の裏から僕らを見守る大人たちの眼さえなかったら、僕にはそれら子供たちの誰をも殴り倒せる自信があった。19)

나는 아버지의 불쾌한 기분에 놀려서 입을 다물고, 《읍내》의 흉하게 비틀어진 가로수 그늘을 누비면서 걸었다. 나는 《읍내》의 가로수도 읍내 아이들같이 음험한 느낌이 들어 정이 붙지 않았다.

僕は父の不機嫌に氣おされて黙りこみ、《町》のいじけて醜い街路樹の影をぬいながら歩いた。《町》の樹もまた、その街路の子供たちのように陰険でなじみにくいのだ。20)

위 인용문에서는 읍내 아이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적의에 가까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만 없었더라면 시비를 걸어오거나 돌을 던졌을 아이들을 굼벙이처럼 싫어했다’와 ‘읍내의 가로수도 읍내 아이들같이 음험한 느낌이 들어 정이 붙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러한 적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읍내 어른들만 없다면 얼마든지 읍내 아이들을 때려눕힐 자신이 있다는 ‘나’의 호언장담은 소외받는 자로서 일종의

19)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99

20) 위의 책 p.102

열등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등감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칠 무렵, 다리 위를 새와 같이 시원한 목을 한 소녀가 걸어왔다. 나는 재빨리 내 복장과 용모에 대해 검토하고 《읍내》의 어떤 아이보다도 훌륭하고 의젓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운동화를 신은 두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소녀가 내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뜨거운 피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소녀는 나를 흘끗 쳐다보곤 눈썹을 찡그리고 뛰어서 가버렸다. 나는 갑자기 밥맛을 잃었다. (중략) 나는 자신이 껍초라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僕らの食事の終りに、橋の上を鳥のようにすがすがしい首をした少女が歩いて来た。僕はすばやく自分の服装と容貌について検討し《町》のどの子供よりも立派でしっかりしていると考えた。僕は靴をはいた両足を前に突きだして少女が僕の前を通りすぎるのをまちうけた。熱い血が耳のなかで鳴っていた。少女は僕を非常に短い時間、見つめ眉をひそめて駆け出して行った。僕は食欲を急になくした。(中略)僕は自分がひどくみすばらしく貧しいと考えた。21)

보통 날에는 신지 않고 아껴뒀던 운동화를 꺼내 신고 읍내 마을로 아버지와 함께 나선 길. 사춘기 소년인 ‘나’에게 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은 호기심을 유발한다. ‘나’는 재빨리 옷매무새를 신경 쓰고 운동화를 신은 발을 쪽 뺨어 보지만, 소녀는 눈썹을 찡그리고 뛰어가 버린다. 스스로는 멋지고 의젓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녀의 행동을 통해 ‘나’는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로 각인되어 버리는 것이다. 즉, 읍내 마을 소녀에게 ‘나’는 역시나 가난하고 불품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읍내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열등감은 서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1)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2

“여선생이 게으름뱅이라 불평만 늘어놓고 분교는 가려고 하지 않아. 너희 마을 아이들은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해서 말이야.” 나는 내 목 줄기가 때 더덕이로 터져 있는 것이 부끄러웠으나 도전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웃어보였다. (중략)
 “아무튼 학교가 쉬게 된 건 좋은 일이야.” 서기는 말하고 또 한 번 의주를 덜컥대면서 웃었다.
 “너희들도 더럽다고 욕먹는 것보다는 교실 밖에서 맘대로 노는 게 낫겠지.”
 “흥 저희들은 안 더러운가.” 나는 입술을 삐죽냈다.
 실제로 분교에 오는 여선생들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웃도 더러웠던 것이다.

「女教師が怠けもので文句ばかりいいやがって、出かけようとしらないんだ。村の子は汚れていて臭くて厭だとさ」僕は自分の首筋が垢でひびわれていることを恥じたが、挑戦的に頭をふりたて、笑ってみせた。(中略)
 「とにかく學校が休みだというのはいいよな」と書記はいい、もう一度義肢をがたつかせて笑った。「お前たちも汚ながられているより、教室の外で遊ぶ方がいいだろ」
 「あいつらだって汚ない」と僕はいった。
 ほんとうに女教師たちは、みんな醜く汚なかったのだ。22)

분교에 오는 여선생들은 산촌 마을 아이들이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는 서기의 말을 전해들은 ‘나’는 자신의 목 줄기의 때를 잠시 부끄럽게 느낀다는 표현에서 소년의 열등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선생들 역시 더럽다는 반격을 함으로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질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읍내 사람들에게 있어 산촌 마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부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거부라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읍내와 산촌이라는 공간의 차별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실제로 분교에 오는 여선생들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웃도 더러웠던 것

2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1

이다.’ 라는 표현이 그 단적인 예이다. 여선생들은 산촌 마을 아이들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분교에 오는 것을 꺼리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못생기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이들은 분교에 가기 싫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결국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들이 있는 산촌 마을로 올 수 밖에 없는, 읍내 안에서의 또 하나의 피차별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피차별적 존재는 비단 ‘하나같이 못생긴’ 여선생들뿐만이 아니다. 의족에 의존해야 하는 ‘외다리’ 서기와 ‘온 몸에서 소냄새가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흑인 병사 역시 읍내와 산촌 마을 안에서 또 다른 피차별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차별적인 존재들로부터 소외된 자 혹은 이물질적인 타자라는 공통분모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들은 산촌마을이라는 축소된 세계 속에서 다시 차별의 서열화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듯 읍내와 산촌 마을이라는 차별구도 안에서 또 다시 차별-피차별이라는 복잡한 이중 구도로서 소외의 감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심리적 공간으로 작품 안에서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육』의 시간적 배경이 작품 안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쟁 중의 어느 초 여름날 저녁 무렵부터 어느 한 여름날 저녁까지로, 단지 끝에 가까워진 전쟁 중이라는 사실만을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²³⁾

이러한 여름날의 전쟁은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아우도 딱딱한 걸쭉질과 두꺼운 과일 살 속에 싸여진 자그만 씨

23) 류수정, 「오에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2, p.24 인용

앗, 연하고 물기가 많아서 외광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덜덜 떨면서 벗겨져 버리는 감피가 붙어 있는 푸른 씨앗이었다. 그리고 딱딱한 겹껍질의 외부, 지붕에 오르면 저 멀리 좁다랗게 빛나 보이는 바다 언저리, 물결이 굽이치는 산과 산을 넘은 저 쪽의 도시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전설과 같이 장대하고 계면쩍게 된 전쟁이 걸죽한 공기를 토하고 있는 것이다.

僕も弟も、硬い表皮と厚い果肉にしっかり包みこまれた小さな種子、柔かく水みずしく、外光にあたるだけでひりひりふるえながら剥かれてしまう甘皮のこびりついた青い種子なのだった。そして硬い表皮の外、屋根に上ると遠く狭く光って見える海のほとり、波だち重なる山やまの向うの都市には、長い間持ちこたえられ伝説のように壮大でどこちなくなった戦争が濺んだ空気を吐きだしていたのだ。²⁴⁾

위 인용문에서는 ‘나’와 아우가 딱딱한 껍질과 과일 살 속에 숨겨진 작고 연한 씨앗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연한 씨앗을 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은 곧 ‘나’와 아우가 존재하는 산촌 마을로서 전쟁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설처럼 오랜 전쟁이 계속되는 외부와는 달리, 딱딱한 껍질과도 같은 산촌 마을은 전쟁의 참상이 드리워지지 않는 곳이다. 때문에 산촌 마을에서의 전쟁은 ‘마을 청년들의 부재와 가끔씩 우편배달부가 가지고 오는 전사 통지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먼 곳의 이야기만 같았던 전쟁도 흑인 병사가 탄 비행기가 마을 가까운 숲에 추락함에 따라 그 실체를 드러낸다. 현(縣)에서의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포로로 잡은 흑인 병사를 사육하게 된 것이다.

『사육』에서 동물적인 이미지를 지닌 흑인 병사가 적병으로 등장하고, 아이들이 흑인 병사를 사육한다는 전제는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보인다. 때문에 포로를 잔인하게 다루는 전쟁의 잔인한 면을 고발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나’와 흑인 병사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면

24)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5

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25)

그러나 현실의 폭력적인 전쟁은 ‘나’를 지하창고에 감금시키면서 돌연 엄습해 왔고 추악한 전쟁의 본질은 짓이겨진 ‘나’의 왼손바닥과 흑인 병사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전쟁도 이쯤 되면 잔인하구나. 아이의 손가락까지 망쳐버리다니.”서기가 중얼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 마시고 잠자코 있었다. 전쟁, 피투성이의 대규모의 오랜 싸움,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먼 나라에서 양떼와 잘 손질된 잔디밭을 휩쓸어가는 홍수처럼, 결코 우리 마을엔 미치지 않을 전쟁. 그런데 그것이 내 손가락과 손바닥을 짓이기려고 몰려온다. 아버지가 도끼를 휘둘러서 전쟁의 피로 몸을 마취시키면서. 그리고 마을은 갑자기 전쟁에 덮여버리고, 그 혼잡 속에서 나는 숨도 못 쉰다.

「戦争も、こうなるとひどいものだな。子供の指まで叩きつぶす」と書記がいった。

僕は息を深く吸いこみ黙っていた。戦争、血まみれの大規模な長い闘い、それが続いているはずだった。遠い国で羊の群や、刈りこまれた芝生を押し流す洪水のように、それは決して僕らの村へは届いてこない筈の戦争。ところが、それが僕の指と掌をぐしゃぐしゃに叩きつぶしに来る、父が鉈をふるって戦争の血に体を酔わせながら。そして、急に村は戦争におおいつくされ、その雑沓の中で僕は息もつけない。 26)

서기가 총괄하고 있듯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기묘한 새처럼 느껴질 뿐이었던 전쟁’이 ‘나’와 흑인 병사를 희생시킴으로서 마침내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참혹한 전쟁은 아이들의 눈이라는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인해, 더욱더 잔인한 모습으

25) 김영은, 「『사육』론-다양한 힘의 논리 읽기-」, 『日本語文学11』, 일본어문학회, 2001, p.259
참조

26)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39

로 그려진다. 이처럼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 깨닫게 되는 전쟁의 참상이야말로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주체와 관계의 양상

『사육』에는 작품을 전개시켜 나가는 주체인 ‘나’가 있고,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관계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관계양상을 크게 마을 사람들과, 흑인병사, 서기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외받는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체인 ‘나’와 이들의 관계양상을 고찰해 나가기에 앞서, 먼저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아우, 아버지와 셋이서 마을 공동창고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작중 국민학교) 소년이다. 아우에게는 의젓한 형이지만, 가설 화장터에 채집을 갔다가 떠올린 시체의 모습에 무서움을 느끼는 ‘나’로 등장한다. ‘나’는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분교장이 쉬게 되자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마을 아이들과 들개 사냥을 가거나, 공동 우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름날을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우와 함께 채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적군의 비행기를 보게 된다. 이 비행기가 마을 가까운 숲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체와 여러 관계의 다각적인 양상과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3-1. 나와 마을 사람들

산촌 마을 사람들은 읍내와 동떨어진 고립된 공간 안에서, 짐승 같은 천대와 차별 속을 살고 있다. ‘나’ 역시 산촌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읍내의 아이들로부터는 멸시를 받기도 한다. 비록 ‘나’와 마을 사람들이 읍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긴 하나 일찍부터 촌락 공동체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왔다.

이러한 촌락 공동체적인 생활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서 공동창고, 공동우물, 공동퇴비장과 같은 마을 공동의 장소와, 마을의 공동재산인 연장상자, 종우(種牛) 그리고 산촌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을 회의를 주도하는 부락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나’와 마을 사람들은 원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울타리 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버거운 탓에 어른들은 매일같이 사냥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없는 빈자리를 들개 사냥²⁷⁾이나 물놀이로 채우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적군의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흑인 병사가 생포되어 온다.

“저놈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아예 내놓고 물어봤다.
“읍내 사무소에서 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여기서 기른다.”
“길러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동물처럼요?”
“저 놈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묵직한 어조로 아버지가 말했다.
“온 몸에서 소 냄새가 난다.” (중략)
흑인 병사를 기른다. 나는 두 팔로 몸을 꼭 껴안았다. 나는 알몸으로 소리쳐 보고 싶었다.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기른다…….

「どうするの、あいつ」と僕は思い切って訊ねた。
「町の考えがわかるまで飼う」
「飼う」と驚いて僕はいった。「動物みたいに？」
「あいつは獸同然だ」と重おもしく父がいった。
「体中、牛の臭いがする」(中略)
黒人兵を飼う、僕は体を自分の腕でだきしめた。僕は裸になって叫びたかった。
黒人兵を獸のように飼う……28)

27) 로버트 롤프(Robert Rolf)는 「『사육』에서의 무구의 상실」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들개사냥은 어른들의 사냥을 반영하는 일종의 놀이라고 보았다.

Robert Rolf, 「『飼育』に於ける無垢の喪失」, 『大江健三郎海外の評價』, 創林社, 1987. p.234

28)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95~96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흑인 병사를 동물처럼 사육한다는 데 있다. 사육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짐승을 먹이여 기른다는²⁹⁾ 뜻으로, 일본어 사전에서 또한 ‘家畜などを養いそだてること’³⁰⁾라고 나와 있다. 이러한 사육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마을 어른들은 흑인 병사를 ‘온 몸에서 소 냄새가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흑인 병사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없애고 있다. 즉,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추락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흑인 병사에 대한 마을 어른들의 이러한 시선을 이치조 다카오(一条孝夫)는 의동물화(擬動物化) 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³¹⁾ 의동물화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마을 어른들의 흑인 병사에 대한 멸시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산촌 마을 사람들이 읍내 사람들로 부터 받아왔던 짐승과 같은 천대의 전형으로 흑인 병사에게 그대로 이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청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흑인 병사를 산촌 마을 안에서 수용하게 되자 어른들은 불만과 곤혹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반면, ‘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이처럼 흑인 병사에 대해서 마을 어른들과 ‘나’는 상반된 감정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마을 공동 창고에 살고 있는 ‘나’는 흑인 병사를 사육하게 되면서부터 그와 한 건물 안에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는 흑인 병사의 식사를 날라주는 일까지도 위임받게 된다. 이 일은 마을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했음을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9)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0, p.1148

30) 新村 出, 「広辞苑」第四版, 岩波書店, 1991, p.1090

31) 一条孝夫, 『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 1997, 和泉書院, p.69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식사 바구니를 든 나와 아버지가 창고 옆에 나타나면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구름처럼 퍼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큰 한숨을 일제히 쉬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지만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가처럼 눈썹을 찡그리고 광장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우와 언청은 내 양 옆에 착 붙어서 지하창고 내리목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朝早く、あるいは夕暮と夜のかわりめに、食物籠をさげた僕と父が倉庫脇にあらわれると、広場で待ちかまえている子供たちは、雲のようにひろがり空へ上って行く大きい嘆息を一斉にもらすものだった。僕は自分の仕事に全く興味を失ってはいるが事を運ぶに際して周到さは持ちつづける専門家のように眉をひそめて広場を横ざり子供たちを一瞥もしない。弟と兎口は、僕の両側にびったり寄りそって地下倉へ降り口まで歩くことで満足していた。³²⁾

난생 처음 본 흑인 병사라는 존재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모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을에서 흑인 병사에 대한 감시를 맡게 된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흑인 병사의 식사 담당을 맡게 된 ‘나’는 일종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는 듯도 하다. 특히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눈썹을 찡그리고 광장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의 행동에서는 마을 아이들에 대한 우월감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우월감은 언청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마을 아이들 중 제일 연장자인 언청은 지하창고의 채광창을 독점하여 하루 종일 흑인 병사를 들여다보는 특권을 누리는데 있다. 언청은 흑인 병사 구경 값으로 아이들에게 대추, 살구, 무화과, 감 따위 등을 받아내어 짧은 시간 동안만 채광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한다. 이렇듯 권력의 힘이 드러나는 수직적 구조는 흑인 병사를 사육하는 일에 대한 책임에서도 보이는 현(縣)-시(市)-정

3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13~114

(町)-촌(村)의 위계구조의 축소판³³⁾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축소판은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포획물》을 둘러싼 어른들의 행렬 뒤를 따라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말없이 떼를 지어서 걸었다. 행렬은 분교 앞 광장까지 천천히 가서 조용히 멎었다. 나는 아이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으나 부락장 노인이 큰 소리로 우리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었다.

《獲物》を囲む大人たちの行列の後ろに続いて、僕ら子供たちはやはり黙りこんで群がりながら歩いた。行列は分敷場の前の広場までゆっくり進み、静かに止った。僕は子供の群がりをかきわけて前へ進み出たが、部落長の老人が声をはりあげて僕らを追いちらすのだった。34)

판자벽에 못 박혀 널린 털가죽이 딱딱하게 마르면, 그 언저리에 피가 흘러서 지도 위의 철도선처럼 빨간 선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흑인 병사가 감탄하자 나하고 아우는 아버지의 《기술》에 우쭐해졌다.

板壁に干された毛皮が爪のように硬く乾き、そこを血色のしみが地図の上の鉄道のように走りまわっているのを見て黒人兵が感嘆する時、僕と弟は父の《技術》をどんなに誇りに思ったことか。35)

위 인용문의 마을의 대표인 부락장 노인의 호통과 동물 가죽을 벗기는 아버지의 기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와 아이들에게 있어 마을 어른들은 위엄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흑인 병사의 존재가 마을에 익숙해짐에 따라 ‘나’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의 생활은 흑인 병사가 중심이 되는 나날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어른들

33) 류수정, 「오에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22

34)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91

35) 위의 책 p.122

은 생업에 종사해야 했으므로 흑인 병사의 존재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또, 흑인 병사가 가축처럼 온순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침내 마을 여자들까지도 흑인 병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이는 흑인 병사라는 타자의 등장이 마을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흑인 병사에 대한 마을 어른들의 감정은 ‘나’가 믿은 만큼 진실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회의가 시작되자 흑인 병사를 현청으로 인도하라는 말을 서기가 사투리로 설명하며 아이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다. (중략) 어른들 단지 흑인 병사를 호송해 가는 작업 때 생길 사고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소리에 경악과 실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흑인 병사를 인도한다. 그 뒤에 마을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여름이 공허한 허울로 되어 버릴 것이다.

會議が始まるとすぐ、黒人兵を県に引きわたすことになったという意味のことを書記が方言で説明し、子供たちを打ちのめした。(中略)大人たちの迷惑は黒人兵を運びおろすという作業によってひきおこされるものだけにすぎない。しかし、僕らは驚きと失望の底にいたのだ、黒人兵を引渡す、そのあと、村に何が残るだろう、夏が空虚な明けがらになってしまう。36)

어느 날 서기가 읍내로부터 전해 온 소식에 ‘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경악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흑인 병사는 어디까지나 떠맡기 귀찮은 적병일 뿐 그 무엇도 아니었다. 때문에 흑인 병사가 가버리고 난 빈자리를 걱정하는 아이들과는 달리 마을 어른들은 호송 작업 때 생길 사고만을 걱정할 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라고 하는 집단은 전쟁을 일으킨 세대이고 전후 체험자이기 때문에 전쟁포로나 다름없

36)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27

는 흑인 병사에 대한 시각은 아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즉 어른들에게 흑인 병사는 수많은 전쟁 피해 중 하나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7)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낀 흑인 병사는 ‘나’를 인질로 잡고 지하 창고에 가두고 뒤늦게 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처참히 죽게 된다. 살아남게 된 ‘나’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원수 같고, 구역질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왼손의 상처로 인한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과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데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전쟁의 실태가 어른들에게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아버린 데서 오는 충격이 아닐까.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언청이와의 피투성이의 싸움, 달밤의 새 사냥, 썰매타기, 승냥이 새끼몰이,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인 것이다. 나는 그런 종류의 세계와는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僕はもう子供ではない、という考えが啓示のように僕をみたした。兎口との血まみれの戦、月夜の小鳥狩り、橇あそび、山犬の仔、それらすべては子供のためのものなのだ。僕はその種の、世界との結びつき方とは無縁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38)

흑인 병사를 태웠던 비행기의 뒷날개는 아이들에게 미끄럼이라는 훌륭한 유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흑인 병사와 전쟁의 잔해를 의미할 뿐이다. 전쟁의 참상을 알아버린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때문에 마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겼던 놀이에는

37) 이금주, 「大江健三郎 문학연구-『飼育』, 『芽むしり仔撃ち』의 작품구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31

38)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38

더 이상 가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가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곧바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썰매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과,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말뚝을 박고 있는 어른들 무리에도 가담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듯 작가는 어느 날 찾아온 전쟁으로 인해 순진무구한 아이였던 ‘나’가 원치 않는 성장을 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전쟁의 잔혹한 실태를 파헤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나와 흑인 병사

『사육』은 흑인 병사의 출현으로 사건이 전환의 양상을 보이는 만큼, 흑인 병사의 등장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코쿠의 외딴 마을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가져온 흑인 병사라는 존재를 통해 오에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까.

흑인 병사가 마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느 새벽녘에 강한 충격음과 땅울림이 들리던 날이다. 아침이 되고 보니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남자 어른들은 모두 부재 상태이다. 이는 ‘나’로선 처음 보는 일로 사건의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마을 어른들은 ‘포획물’과 함께 돌아온다.

《포획물》은 회갈색의 비단 비행복을 입었는데 발에는 부드러운 검정 가죽 비행화 대신 수통 맞고 묵직한 신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검정 윤이 흐르는 큰 얼굴을 들어서 흰한 빛이 좀 남은 하늘을 먼 눈빛으로 보면서 절뚝거리며 끌려오고 있었다. 《포획물》의 두 발목에는 산돼지 털이 채워져 있어 걸을 때마다 절걱대는 소리가 요란했다.

《獲物》は、灰褐色の絹の飛行服を着こみ鞣した黒い皮の飛行靴をはくかわり

に、草色の上衣とズボンをつけ、足には重そうで不恰好な靴をはいていた。そして黒く光っている大きい顔を傾けて昏れのこる空をあおぎ、びっこをひきながら足をひきずって来る。《獲物》の両足首には猪畏の鼠ぐさりがはめこまれていて、それが鼠がしい音をたてていた。39)

위 인용문은 마을 어른들의 ‘포획물’ 즉, 흑인 병사에 대한 묘사이다. 산 돼지 뒷에 채워져 수확물로서 잡혀 온 적군 병사. 그것도 까만 피부를 지닌, 확실히 인간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동물 같은 존재인 흑인 병사와의 첫 대면은 ‘나’에게 있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흑인 병사의 등장을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마을의 일상성을 깨는 흥분의 대상인 동시에 마을 축제와도 같은 고양감(高揚感)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으로 보고 있다.⁴⁰⁾

실제로 오에는 시코쿠 마을에 주둔하러 왔던 점령병사들의 인상을 『전후 세대의 이미지(戦後世代のイメージ)』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 승전국의 병사인 흑인을 처음 보았을 때의 공포와 혐오, 게다가 일종의 경외감을 잊을 수가 없다. 흑인 병사는 마을을 걸어 다녔다. 여자아이를 바라보거나, 개를 놀리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하면서 걸어 다녔다. 그것을 초등학생인 내가 몸에 땀을 흠뻑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또 어떤 때에는 지프를 타고 온 백인 병사들이 마을 외딴 곳의 작은 강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본적도 있다. 그들은 복숭아 빛 피부와 금발의 체모를 물과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외국인 바로 그 자체였으며, 외국 그 자체였다.

ぼくは子供のころ、勝った軍隊の兵士としての黒人を初めてみた時の恐怖と嫌

39)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91

40) 黒古一夫, 「壁の中の祝祭-大江健三郎の原点」, 『大江健三郎-森の思想と行き方の原理』, 彩流社, 1989. p.124 참조

悪、それに一種の畏敬の念を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
黒人兵は村を歩いていて、女の子をながめたり、犬をからかったり、口笛を吹いたりして歩いていた。それを小学生のぼくが体じゅうに汗をかいて見まもっていた。またある時にはジープに乗ってきた白人の兵隊たちが村はずれの小川で泳ぐの見たこともある。彼らは桃色の皮膚と金色の体毛とを水や日の光にきらめかせていた。あれはまさしく外国人そのものであり、外国そのものだった。41)

오에는 어린 시절 보았던 흑인 병사에 대해 공포, 혐오 이외에도 일종의 경외감마저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메리카와 싸운 소국민의 정치적인 감정이기 이전에 한 명의 소년으로서의 순수한 느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때의 공포와 혐오, 경외감이라는 순수한 느낌은 『사육』 안에서 재구성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마을 어른들이 흑인 병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동안 ‘나’는 언청이와 포획물에 대해 엇갈린 논쟁을 벌인다.

놀라움에 숨길을 몰아가며 언청이가 외쳤다.
“진짜 깜둥일 썩 죽어?”
“적병이니까” 나는 자신 없는 주장을 했다.
“적이라구? 저놈이 우리 적병이야?”
언청이는 내 앞가슴을 움켜잡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 침을 튀기면서 큰 소리로 나를 힐난했다.
“깜둥이야. 그런데 무슨 적이겠어.”

驚きに息を弾ませて兎口が叫んだ。「正真正銘の黒んぼを撃ち殺す」
「敵だから」と僕は自信なく主張した。
「敵、あいつが敵だって？」
と兎口は僕の胸ぐらを掴み唇の割れめから唾液を僕の顔いちめん吐きかけながら声を囁かせ、どなりちらした。
「黒んぼだぜ、敵なもんか」42)

41) 大江健三郎, 「戦後世代のイメージ」, 『戦慄な網渡り』, 文芸春秋, 1969, pp24~25

위 인용문의 ‘자신 없는 주장’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나’에게는 흑인 병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일본의 적군으로서 흑인 병사인지,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질감에서 생기는 동물적인 존재로서의 흑인 병사인지 분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애매성은 생포된 적군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 병사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나는 흑인 병사가 총살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다른 등장인물인 ‘언청이’는 흑인 병사를 적군이 아닌 단순한 ‘깜둥이’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어른들이 그랬듯이 흑인 병사에 게서 인간의 의미를 제거하고 의동물화(擬動物化)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도 흑인 병사라는 개념의 애매성은 점차 명료해지기 시작한다.



“죽이진 않겠지?” 언청이가 신나서 외쳤다.

“깜둥인 우리 적이 아니거든.”

“죽이진 아까우니까.” 아우도 기쁜 듯이 말했다.

「殺さないんだろ？」と勝ちほこって兎口が叫んだ。

「黒んぼは敵じゃないからな」

「惜しいから」と弟も嬉しそうにいった。43)

위 인용문을 통해 ‘나’에게 있어서 흑인 병사에 대한 정의는 적이 아닌 ‘깜둥이’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흑인 병사는 더 이상 적병이 아닌 ‘죽이진 아까운’ 존재이자 사육해야 할 동물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의 이미지는 흑인 병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등장인물에게서도

4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92

43) 위의 책 p.111

보이는데, 로버트 롤프(Robert Rolf)는 아버지의 경우 「夜の森にひそんで獲物に跳びかかろうとする獣のよう」로 아우는 「幸福な獣のように満足して食べ」, 마을의 아이들은 「若い獣のよう」로 표현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경묘사에서도 「小動物の臭いのする湿っぽい空気」로 표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당분간 마을에서 흑인 병사를 사육하게 되면서 ‘나’는 흑인 병사와 한 집에 살게 된다.

우리는 《포획물》하고 같은 집에 살게 된 셈이다. 지붕 밑에서 귀를 기울인대도 지하창고 속의 큰 소리는 들릴 리도 없겠지만, 흑인 병사가 잠금된 지하창고 윗 층에서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이어서 우리로선 전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운이었다. 나는 흥분과 환희로 이가 덜덜 떨릴 정도였으며 아우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다리를 오그리고 악성 감기에 걸린 듯이 떨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무거운 엽총과 피로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뜻밖에 닥쳐온 이 근사한 행운에 미소를 나누었다.

僕らは《獲物》と同じ家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屋根裏で耳を澄ましても地下倉の叫びは決して聞こえないであろうが、黒人兵が連れこまれた地下倉の上で臺台に坐ってられるのは豪華で冒険的な、僕らにとって全く信じられないほどの事だ。僕は感情の昂揚、おびえと喜びに齒が音をたてて噛みあうほどだったし、弟は毛布をかぶって足をちぢめ、悪性の感冒にかかったように震えていた。そして僕らは、父が重い獵銃と疲れを支えて帰って来るのを待ちながら、自分たちにふってわいたすばらしい好運に微笑みあうのだった。⁴⁵⁾

흑인 병사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악성 감기에 걸린 것처럼 덜덜 떨릴 정도의 흥분과 환희인 동시에 근사한 행운’으로 표현되고 있다. 채집과 물놀이로 일상을 보내던 아이들에게 있어 흑인 병사를 사육한다는 것은

44) Robert Rolf, 「『飼育』に於ける無垢の喪失」, 『大江健三郎海外の評価』, 創林社, 1987. p.238

45)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94

매우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육되는 대상은 동물이 아닌, ‘깜둥이’ 즉, 의동물화 된 흑인 병사이다. 때문에 이는 다른 어떤 동물을 사육하는 것보다도 대단한 모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마을에서 흑인 병사 사육을 맡게 된 아버지를 도와 흑인 병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언제까지 현청으로부터의 보고만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총 끝으로 깜둥이를 겨누고 있는 사이에 깜둥이에게 등을 돌리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깜둥이가 낮고 투박한 기침을 했다. 나는 발을 헛디뎠고 온몸의 피부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중략) 내가 층층대를 올라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헬썩해져서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고 있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한 일본 소년 불을 실룩이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父の銃孔にまもられて黒人兵に背をむけ、階段を上ろうとした時、僕は黒人兵の低く厚ぼったいしわぶきを聞いたのだ。僕は足を踏みはずし、体中の皮膚がおびえから鳥肌になってしまうのを感じた。(中略)僕が階段を上るにつれて青ざめて血の氣のない唇を噛みしめた、全くとるにたりない日本人の少年が頬をひくひくさせて薄明りの中へ浮かびあがって来るのだった。46)

흑인 병사의 식사를 담당하게 된 일은 그와 같은 집에 살게 된 일에 이어 ‘나’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결코 동물은 아닌 흑인 병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없는 ‘나’만의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을 통해 아직 ‘나’는 흑인 병사에 대한 경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는 흑인 병사의 기침소리에 도 놀라서 발을 헛디뎠고

46)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8

마는, 공포와 두려움에 헬썩하고 빈약한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흑인 병사 식사를 나르는 일이 거듭될수록 ‘나’는 흑인 병사를 짐승이 아닌, 길들여진 온순한 동물처럼 느끼게 된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흑인 병사에게 더 이상 충을 겨누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흑인 병사를 보는 시선이 짐승에서 온순한 동물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흑인 병사의 발목을 감싸고 있는 날카로운 쇠사슬 소리에 소름이 돋곤 한다. 이는 흑인 병사가 온순한 동물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흑인 병사에 대한 ‘나’의 이러한 감정은 발목에 채워져 있는 덩을 풀어줌으로서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나’와 언청이는 덩 때문에 발목에 염증이 생긴 흑인 병사를 걱정하다가 그가 ‘한 마리의 순한 깜둥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풀어줄 결심을 한다. 이는 ‘나’와 언청이가 어른들과는 달리 동물의 상처를 걱정하는 동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깜둥이는 봄철에 마을을 다녀가는 덩 수선쟁이처럼 기술자답게 정확한 솜씨로 덩의 고장난 부분을 검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검정 윤나는 이마를 들고 나를 응시하며 몸짓으로 자기의 요구를 표시했다. 나는 언청이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쁨을 누를 수가 없었다. 깜둥이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 가축이 우리에게 말을 걸듯이, 깜둥이가 말을 걸고 있다.

黒人兵は春、村へ来る罌の修繕屋のように、技術的な確固としたやりかたで罌の故障部分を点検していた。それから急に彼は黒く輝く額をあげて僕を見つめ、身ぶりで彼の要求を示した。僕は兎口と顔を見合わせながら、罌をゆるめときほぐす喜びを押しえることができない。黒人兵が僕らに語りかける、家畜が僕らの語りかけるよう

に、黒人兵が語りかける。47)

“저 놈, 인간처럼.” 하고 언청이가 낮은 음성으로 나한테 속삭였을 때, 나는 아우의 엉덩이를 찌르면서, 웃음으로 몸이 비틀릴 정도로 행복하고 신나는 기분이 들었다.

「あいつ、人間みたいに」と兎口が低い声で僕にいった時、僕は弟の尻を突つきながら笑いで体によじるほど幸福で得意な気持だった。48)

그 옆에 앉은 우리를 보고 깜둥이가 누렇게 더러워진 큰 이를 드러내며 볼을 일그러트렸을 때, 우리는 깜둥이도 웃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깜둥이와 갑자기 깊고 힘찬, 거의 《인간적》인 연결로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었다.

傍に坐る僕らを見て、黒人兵の黒色く汚れてきた大きい歯が剥き出され頬がゆるむと、僕らは衝撃のように黒人兵も笑うということを知ったのだった。そして僕らは黒人兵と急激に深く激しい、殆ど《人間的》なきずなで結びついたことに気づくのだった。49)

위 인용문에서는 흑인 병사가 고장난 덧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위한 몸짓을 했을 때 ‘나’와 언청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흑인 병사를 언청이는 ‘인간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록 흑인 병사와 아이들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으나, 결코 인간으로서는 취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흑인 병사에 대한 아이들의 시선은 짐승에서 온순한 가축으로 이동되어진 것뿐이다. 때문에 온순한 가축일 뿐인

47)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17

48) 위의 책 p.118

49) 위의 책 p.118

흑인 병사가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마치 사람처럼 웃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을 계기로 ‘나’와 언칭이는 흑인 병사하고 거의 인간적인 연줄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줄은 어디까지나 가축의 연장선일 뿐, 흑인 병사=동물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생각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얇은 벼랑에 떨어진 서기가 의족도 망가진 채 인사불성의 상태로 운반되어 오면서 ‘나’와 흑인 병사의 관계는 또 다른 양상을 맞이한다. 흑인 병사가 망가진 덧을 수리하던 것을 생각해낸 아이들은 고장난 의족과 연장도구를 가지고 흑인 병사에게로 간다. 결국 덧을 수리했던 때와 같이 서기의 의족도 말끔히 수리를 함으로서 흑인 병사는 거의 완전해 가까운 자유의 몸이 된다. 이때부터 흑인 병사는 아이들과 같이 대장간 일을 구경가거나, 혼자 마을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기하며, 자유의 몸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웃어댔고 마침내는 웃다가 지쳐서 서 글픈 생각이 스며들 정도였다. 우리는 흑인 병사를 둘도 없는 훌륭한 가축, 천재적인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흑인 병사를 사랑했는지 모른다. 저 멀리 빛나는 여름 날 오후의 물에 젖은 피부 위에 번쩍이는 햇볕, 자갈길 위의 짙은 그림자, 아이들과 감둥이의 냄새, 기쁨에 들뜬 소리, 그 모든 것의 충만함과 울동을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僕らは体を下肢に支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まで笑い、そのあげく疲れきって倒れた僕らの柔かい頭に哀しみがしのびこむほどだった。僕らは黒人兵をたぐいまれなすばらしい家畜、天才的な動物だと考えるのだった。僕らがいかに黒人兵を愛していたか、あの遠く輝かしい夏の午後の水に濡れて重い皮膚の上にきらめく陽、敷石の濃い影、子供たちや黒人兵の臭い、喜びに哽れた声、それらすべての充満と律動を、僕はどう伝えればいい？⁵⁰⁾

위 인용문은 『사육』의 클라이맥스로 ‘나’를 비롯한 아이들과 흑인 병사가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아이들도 흑인 병사도 모두 벌거벗고 서로 물을 끼얹으며 아우성친다. 거기서 언칭이는 계집아이와의 성적인 쾌락의 의식을 보여주고, 암염소를 잡아와 흑인 병사에게도 성적인 의식을 유도하며, 아이들과 흑인 병사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웃는다. 실로 고대 신화의 한 장면과 겹치는 유토피아의 모습이다.⁵¹⁾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흑인 병사를 사랑했는지 모른다.’ 라는 회상조의 문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갑자기 솟아오른 유정(油井)처럼 기쁨을 뿌리는 여름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못하였다. 목욕을 끝낸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흑인 병사를 현청으로 인도하라는 사령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한 ‘나’는 흑인 병사에게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해 뛰어간다. 그러나 갑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낀 흑인 병사는 결국 ‘나’를 인질로 잡아 지하 창고에 가두고 만다.

나는 갑자기 흑인병사가 잡혀 왔던 그 때와 같이 이해를 거부하는 한 마리 독성을 가진 위험한 검정 짐승으로 돌변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덩치 큰 흑인 병사를 쳐다보고 뚜껑문에 채워진 산돼지 뒹을 올려다보고, 내 조그만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와 경악이 홍수처럼 내 오장육부를 휩쓸며 소용돌이 쳤다.

急激に僕は、黒人兵が捕えられて来た時と同じように、理解を拒む黒い野獣、危険な毒性をもつ物質に変化し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のだ。僕は大きい黒人兵を見あげ、揚蓋にからみついた猪鬣を見、自分の小さい裸足を見おろした。恐怖と驚愕とが洪水のように僕の内蔵をひたし渦巻く。⁵²⁾

50)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25

51) 유수정, 「오에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46 인용

5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28

나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흑인 병사의 팔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흑인 병사의 포로였다. 그리고 미끼였다. 흑인 병사는 《적》으로 변해 있었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문 저편에서 소란스레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 배신의 초조한 슬픔이 나의 몸을 불같이 감싸고돌아 태웠다.

僕は痛みに呻いて黒人兵の腕の中でもがきながら、すべてを残酷に理解したのだった。僕は捕虜だった、そしておとりだった。黒人兵は《敵》に変身し、僕の味方は揚蓋の向うで騒いでいた。怒りと、屈辱と、裏切られた苛立たいい哀しみが僕の林を火のように走りまわり焦げつかせた。⁵³⁾

‘나’는 여기서 흑인 병사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로버트 롤프(Robert Rolf)가 주인공인 ‘나’의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매우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나’는 처음에는 공포, 뒤이어 친밀감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공포라는 감정의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⁵⁴⁾ 흑인 병사를 처음 봤을 때의 공포감에 이은 친밀감은 ‘나’가 아이들에게 동화되어 흑인 병사를 온순한 가축으로 여긴, 즉 바꿔 말하면 성스러운 가축으로서 착각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흑인 병사에 대한 이러한 친밀감은 어른들 보다 빨리 경계심이 해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을의 어른들이 안심하고 흑인 병사를 가두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꺼운 참죽나무 판장이 오히려 지금은 흑인 병사를 위한 것이 되었다. 마을의 어른들, 아이들, 수목, 산골짜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두꺼운 참죽나무 판자로 인해 외부 지상에 감금되어 버린 것이다.

흑인 병사를 친구처럼 믿고 있었던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나를 몹시 자책하게 했다. 그러나 언제나 웃음을 띠고

53)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29

54) 김영은, 「『사육』론-다양한 힘의 논리 읽기-」, 『日本文學11』, 일본어문학회, 2001, p.260

있는 검고 냄새나는 이 큰 사나이를 의심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내 앞의 암흑 속에서 날카로운 이 가는 소리를 가끔 내고 있는 이 사나이가 그 큼직한 섹스를 가진 바보 감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黒人兵を友人のように信じていたこと、それがいかに愚かしいことだったかということが僕を激しく責めたてる。しかし、あのいつも笑ってばかりいる黒くて臭う大男を疑うことができるか? しかもいま、僕の前の暗闇のなかで靦い歯音を時どきたてている男が、あの大きいセックスのばかな黒んぼうだとは思えない。55)

흑인 병사의 돌변한 태도로 인해 ‘나’는 그를 믿었던 사실을 자책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흑인 병사와 함께 지낸 시간들에서는 그를 온순한 가축이라고 밖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온순하고 언제나 웃음을 띠고 있었던 흑인 병사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타인을 희생시키고 마는 예고이즘의 한 어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흑인 병사는 아버지가 휘두른 도끼에 죽음을 맞이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전쟁은 내재화 되어버리고 만다.

3-3. 나와 서기

『사육』에서 서기는 산촌 마을과 읍내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마 필드(Norma Field)는 이러한 서기의 존재를 언칭이가 ‘나’와 마을 아이들을 이어주는 것처럼 산촌 마을과 읍내를 잇는 존재라 보고 있다.⁵⁶⁾ 이처럼 서기는 사건 전개상 매우 큰 비중을 지닌 인물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건 전개가 서기가 전하는 전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통

55)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31~132

56) 島村 輝, 「大江健三郎の神話・近代・虚構」, 『日本文学研究論文集45大江健三郎』, 若草書房, 1998, p.13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서기에 대한 묘사이다.

나는 복도에 맨발이 달라붙는 소리를 내면서, 운동화를 양손에 들고, 내가 《읍내》에서 유일하게 아는, 우리 마을에 가끔 《읍내》의 통지를 전해주러 오는 남자를 찾았다. 마을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 외다리 사내를 《서기》라고 부르는데 마을 분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그는 의사의 조수 일도 했다.

僕は、廊下に裸足の吸いつく音をたてながら、靴を両手に持って、僕の《町》での唯一の知り合い、村へたびたび《町》からの通知を伝える男を探した。村の大人たちも子供たちも、その片足の男を《書記》とよんでいるのだが、村の分教場の身体検査の時、その男は医師の助手のような仕事をした。⁵⁷⁾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서기는 신분상의 서기가 아니라 편의상 붙여진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서기는 ‘외다리’로 의족을 차고 다니는 몸이 불편한 인물이다. 그러나 서기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산촌 마을에 통지서를 전달해 주는 일로 그의 신체적 결함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 작품의 공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산촌 마을은 읍내와 상당거리 떨어져 있다. 그나마 지름길이던 구름다리마저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산등성이를 타야만 읍내 마을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신체 건강한 사람도 한나절이 걸려야 도착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읍사무소 직원이라면 누구나가 우편배달부 일을 꺼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서기가 그것도 한 쪽 다리를 의족에 기대어 오르내린다는 점에서 서기는 읍내 마을안의 소외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기가 ‘외

57)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0

다리' 우편배달부라는 설정은 '언청이'라는 작중인물의 연장선으로 불구와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가 읍내 안에서는 이처럼 소외받는 존재이긴 하나 산촌 마을에서는 권위적인 인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읍내》 사무소와 경찰지서에서는 흑인 병사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권한도 없다고 서기는 말했다. 현청까지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포로를 보호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의무는 이 부락에 있다고 강조해 말했다. 그런 서기의 주장에 부락장은 이 마을에선 흑인 병사를 포로로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반박을 되풀이 했다. (중략) 그러자 서기가 하급 관료적인 큰 소리의 명령조로 나오자 마을 어른들은 아주 비굴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町》の役場と駐在所では、黒人兵の捕虜をどう処置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書記はいうのだった。県庁まで報告し、それへの回答があるまで黒人兵を保管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その義務は村にある。書記の主張に部落長が反駁して、村には黒人兵を捕虜として収容する力がないということをくりかえした。(中略) しかし書記が命令的な口調、一種の下級官僚的な尊大な口調になると村の大人たちは弱よわしくそれに屈伏するのだった。58)

산촌 마을에서 생포한 포로에 대한 상부로부터의 보고와 그에 따른 회신으로서 서기의 전달, 특히 명령적인 어투에 주목해 보면 산촌 마을과 읍내 는 철저한 권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기의 관료적인 태도에 마을 어른들은 비굴하게 굴복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서기가 읍내 안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자로서 소외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산촌 마을에서는 권위적인 인물로서 위상이 바뀌고 있다.

58)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11

한편 ‘나’는 읍내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인 서기와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친근한 사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다음 인용문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읍장실에서 나온 아버지가 작은 음성으로 나를 불렀다. 서기는 친밀감의 표시로 내 어깨를 툭 쳐주었고, 나도 답례로 그의 팔을 건드리고서 뛰어나왔다.

町長室から出て来た父が低い声で僕を呼んでいた。僕は書記に肩をたたかれ、その腕をたたきかえしてから駆け出した。59)

나는 언청이 곁을 떠나 어른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서기한테로 갔다. 서기는 나를 뒷 입술에 코딱지를 붙이고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내 자존심과 그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구겨놓았다.

僕は兎口から離れ、大人たちに囲まれて話し合っている書記のところへ行った。書記は僕を、はなみずを上唇に乾かせている村の子供たちと同じように全く無視して話し続け、僕の自尊心と彼への親しみの感情を傷つけた。60)

비록 외다리의 서기라 할지라도 그는 산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읍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읍내 사람들로 부터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나’로서는 ‘나’는 권위 (권력)를 표상하는 서기를 안다는 사실로 인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보다 우월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서기를 알고 있다는 데서 오는 왜곡된 자긍심이다. 그러나 서기는 ‘나’를 ‘입술에 코딱지가 붙어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무시하고 ‘나’의 일방적인 추종심은 자존심을 상하고 만다. 여기서 나와 서기의 관계는 대등한 신뢰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59)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1

60) 위의 책 p.111

추종으로서 굴종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흑인 병사 사육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서기는 산촌 마을로 읍사무소의 통지를 전해주러 오다 얇은 벼랑에 떨어져 구조되어 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서기는 의족의 딱딱하고 두꺼운 가죽을 쇠틀로 메운 부분이 일그러져서, 발에 잘 맞지 않는 것을, 부락장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난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읍내》의 지령을 좀처럼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초조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서기가 흑인 병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벼랑 밑에 쓰러진 채 발견되지 않고 굶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書記の義肢の固く厚い皮を金属枠でとめた部分が歪み、うまく足にはめこむ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のを、部落長の家で手あてをうけながら書記は当惑して見つめていた。そして、《町》の指令をなかなか伝えようしない。大人たちは苛立ち、僕らは書記が黒人兵を連れて行くために来たのなら、崖の下に倒れたまま見つけられず、餓死してくれたらよかったのと思うのだった。⁶¹⁾

여름 나날을 온통 흑인 병사를 사육하는 일로 지내던 아이들에게는 흑인 병사를 뺀 여름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서기가 만약 흑인 병사를 데리러 온 것이라면 차라리 벼랑에 떨어진 채 발견되지 않아 죽어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에게 있어 서기는 비록 읍내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자, 마을 아이들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라고 자부했던 인물이긴 하나, 흑인 병사를 대신 해 줄 만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서기는 현청에서의 지령이 늦어지는 것을 변명하려고 마을에 오는 길이

61)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19~120

었고, ‘나’와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흑인 병사에게 의족과 연장상자를 날라, 의족 수리를 부탁한다.

흑인 병사는 포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상의 공기, 여름 저녁나절의 싱싱하고 상쾌한 공기를 큰 콧구멍 하나 가득히 들며 마시며 서기가 하고 있는 의족 시험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모두가 양호했다. 서기는 뛰면서 돌아오더니 주머니에서 호장풀잎으로 만든 담배, 독한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몹시 아픈, 거의 야화 같은 냄새를 내는 엉터리 담배에 불을 붙여서, 키 큰 흑인 병사에게 주었다. 흑인 병사는 그것을 빨려고 하다가 심한 기침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누르고 영겨주춤 앉았다. 서기는 민망스러워서 서글픈 듯이 미소를 띠었으나 우리 아이들은 허리를 잡고 깔깔 웃었다. 흑인 병사는 몸을 일으키고 큰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은 뒤에 그의 육중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검정 윤이 나는 파이프를 꺼내서 서기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서기가 그 선물을 받자 흑인 병사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들에게 황혼의 포도 빛 햇별이 넘쳐흘렀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올리고, 미친 듯이 웃으며 그들의 주위에서 와글대는 것이었다.


黒人兵は捕虜になってから始めての地上の空気が、夏の夕方のさわやかで水みずしい空気を太い鼻孔いっぱい吸いこみ、書記の試歩を熱心に見つめた。すべては良好だった。書記は駈けながら戻って来、ポケットから彼がイタダリの葉で作った煙草、煙が眼にしみると激しく痛む、殆ど野火の匂いを思わせる不格好な煙草に火をつけて、背の高い黒人兵に渡した。黒人兵はそれを吸いこもうとし、激しく咳きこみながら喉を押さえて屈みこんだ当惑して、もの哀しそうな微笑をうかべたが僕ら子供たちは大笑いだった。黒人兵は体を起し、巨きい掌で涙をぬぐい、それから彼の遅しい腰をしめつけている麻地のズボンから黒く光るパイプを取り出すと書記にさし出すのだった。

書記がその贈り物を受けとり、黒人兵が満足そうにうなずき、彼らに夕暮の葡萄色をしたかげりを作る陽ざしがあふれた。僕らは喉が痛みはじめるほど叫びたて、狂気のように笑い、彼らの周りにひしめきあうのだ。⁶²⁾

6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20~121

서기의 의족을 고치는 일로 인해 흑인 병사는 거의 자유에 가까운 몸이 된다. 비록 적군이긴 하나, 의족을 수선해준 고마움 때문에 호장풀잎 담배를 내미는 모습은 서로에게 융화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담뱃로 서기에게 파이프를 선물로 전하며 끄덕이는 흑인 병사에 모습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장면인가. ‘나’는 이러한 평화로운 여름날이 계속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흑인 병사를 현청으로 인도하라는 서기의 지령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흑인 병사의 죽음과 ‘나’의 왼손의 상처를 만들고 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애. 기운을 차렸니. 개구리”
나는 뒤에서 메마르고 뜨거운 손이 내 머리를 누르는 것을 느꼈으나 돌아다보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おい、元氣を取戻したか、蛙」
僕は背後から乾いた熱い掌で頭を押しつけられたが、振りむいて立上ろうとはしなかった。63)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 서기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나’는 서기가 예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무시한 채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자존심의 상처 때문이 아니다. 서기는 ‘나’에게서 ‘나’가 사랑하던 흑인 병사와 ‘나’의 울타리였던 마을 사람들을 전쟁이란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때문에 그런 서기에게 ‘나’는 더 이상의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63)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38~139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산촌 마을에서 ‘마을 청년들의 부재에 지나지 않았던 전쟁’은 서기의 망가진 의족 수선을 인해 그 상처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흑인 병사의 죽음과 ‘나’의 왼손을 짓이김으로서 더욱더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흑인 병사의 죽음에 이은 설정으로 서기의 죽음을 택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서기에게서 산촌과 읍내 두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기의 죽음은 흑인 병사와 더불어 또 한사람, 즉 서기를 전쟁의 희생자로 변모시킴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IV. 이미지로서 감금과 공생

오에는 최초의 단편소설집 『죽은 자의 사치(死者の奢り)』(1958)의 후기(後記)에 작품의 의도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64)

나는 이 작품들을 거의 1957년 후반에 썼습니다. 감금되어있는 상태, 폐쇄된 벽속을 살아가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일관된 나의 주제였습니다.

僕はこれらの作品を1957年のほぼ後半に書きました。監禁されている状態、閉ざされた壁のなかに生きている状態を考えることが、一貫した僕の主題でした。

위 글은 초기 작품을 쓸 당시의 작가의 집필 동기가 지극히 단적으로 나타나져 있다. 즉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 닫힌 벽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오에가 초기 작품을 통해 보인 일관된 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상황이란 동기는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초기 작품 균을 쓸 무렵인 1957년은 오에가 동경대학 불문과 재학 중으로, 사르트르의 심취하여 있을 무렵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관심은 개인의 고립, 즉 사회로부터의 소외였다. 인간의 한계성에 대립하게 되는 이성과 본능의 갈등, 유한성과 영원성의 대립, 행복을 추구하는 불행의 과정, 만족을 모르는 가치에의 탐구, 이 모든 것이 인간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의 현상이지만 인간 삶속에 부조리한 모습을 전제로 하되 현실에 대한 실존주의적이고 허무적인 체

64) 松原新一, 「監禁状態」, 『大江健三郎の世界』, 講談社, 1967, p.22

힘과 비인간화 되어가는 인식의 현상만을 작업의 출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 안에서 불안 절망 소외감 공포 책임감 선택 죽음 등이 인간 존재의 기본범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한계상황(삶과 죽음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 처한 절망하고 고통 받는 인간이 실존주의 철학의 인간형이다.⁶⁵⁾ 그렇다면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오에는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

논자는 오에가 대학 졸업논문으로 ‘사르트르 소설의 이미지의 관하여’를 쓴 데 착안하여, 『사육』의 감금과 공생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해 보고자 한다.

4-1. 감금의 이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에는 그의 소설이 ‘감금된 상황, 갇힌 벽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감금 상황을 크게 지리적 감금 상황과 심상적 감금상황으로 나누어 작품 안에 설정했다. 즉, 『사육』 『짓밟히는 싹들』에서는 지리적 감금상황을, 『기묘한 일거리』 『죽은 자의 사치』 『개인적 체험』 등에서는 심상적 감금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⁶⁶⁾ 이처럼 감금과 폐쇄라는 한계상황은 『사육』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작품의 공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감금의 이미지로서 먼저 격리된 산촌 마을을 들 수 있다.

65) 이명아, 「공간에 나타난 소외심리의 표현 연구」, 서울 산업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1

66) 김낙길, 「大江健三郎의 初期作品에 나타난 現實 認識에 대한 考察」,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p.15 인용

우리 산마을에서 노천화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그 해 여름의 지루한 장마 때문이었다. 끈덕지게 계속된 비로 홍수가 일과처럼 되었다. 마을에서 읍내로 통하는 지름길에 걸렸던 구름다리를 산사태가 휩쓸어 가버리자 우리 국민학교 분교는 문을 닫았고, 우편물도 끊겼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읍내에 가야할 경우엔 산등성이를 타고 비탈이 완만한 곳을 찾아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읍내 화장장까지 시체를 운반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僕らの村で野天の火葬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は、その夏の始まる前の長びいた梅雨、執拗に長い間降りつづけ洪水を日常的にした梅雨のためだった。僕らの村から町への近道の釣り橋を山崩れが押しつぶすと、僕らの小学校の分教場は閉鎖され、郵便物は停滞し、そして僕らの村の大人たちは、やむをえない時、山の尾根づたいに細く地盤のゆるい道を歩いて《町》へたどりつくのだった。《町》の火葬場へ死者を運ぶことなどは思いもよらない。67)

‘나’가 살고 있는 산촌 마을은 그 해 여름이 시작되기 전 끈질긴 장마에 의해 산촌에서 읍내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인 구름다리가 산사태로 파괴되어 한층 격리된 상황에 놓인다. 로버트 롤프(Robert Rolf)는 산촌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획물을 가두는 우리가 되고, 또한 소우주가 되어 오에의 감금과 성숙의 드라마가 탄생한다고 보고 있다.⁶⁸⁾ 이처럼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고립의 설정은 현실의 전쟁이 침투되어 오기에는 상당히 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 상황은 외부세계인 읍내 마을과 내부세계인 산촌 마을을 명확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 있는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 갇힌 벽속을 살아간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며, 산촌과 읍내의 공간적인 거리는 달힌 폐쇄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폐쇄상태는 오에가 산촌 마을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세계로 주인

67)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1

68) Robert Rolf, 「『飼育』に於ける無垢の喪失」, 『大江健三郎海外の評価』, 創林社, 1987, p.233

공 역시 갇혀진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감금상태를 질게 드리우고 있다. 즉, 폐쇄된 산촌 마을 안에 폐쇄된 개인이라는 이중으로 폐쇄된 세계가 오에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구도⁶⁹⁾이자 감금의 이미지인 것이다.

이처럼 두 공간에서 보이는 감금의 이미지는 서기의 죽음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촌 마을과 읍내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등장하는 서기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보이는 죽음을 통해 두 공간의 단절을 상징하고 있다. 서기는 온전치 못한 외다리로나마 두 공간의 연결을 도왔으나, 작품 마지막에 설정된 그의 죽음은 산촌 마을을 또 다른 폐쇄상황으로 빠뜨리는, 일종의 감금 장치라 할 수 있다.

『사육』 안에서의 또 하나의 감금은 ‘단힌 벽속을 살아가는 상태’라는 모티프상 의도적으로 짜여진 흑인 병사의 사육이라 할 수 있겠다.

“저놈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아예 내놓고 물어봤다.
“읍내 사무소에서 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여기서 기른다.”
“길러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동물처럼요?”
“저 놈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묵직한 어조로 아버지가 말했다.
“온 몸에서 소 냄새가 난다.” (중략)
흑인 병사를 기른다. 나는 두 팔로 몸을 꼭 껴안았다. 나는 알몸이 되어서 고래고래 소리쳐 보고 싶었다.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기른다…….

「どうするの、あいつ」と僕は思い切って訊ねた。
「町の考えがわかるまで飼う」
「飼う」と驚いて僕はいった。「動物みたいに？」
「あいつは獸同然だ」と重おもしく父がいった。「林中、牛の臭いがする」
(중략)
黒人兵を飼う、僕は林を自分の腕でだきしめた。僕は裸になって叫びたかった。黒人兵を獸のように飼う……70)

69) 大隈 満 外, 『大江健三郎研究四回』の森と文学的想像力』, リーブル出版, 2004, p.102 참조

70)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95~96

작가는 의도적으로 적군 포로를 흑인 병사로 설정함으로써, 동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사육이라는 감금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사육한다는 것, 즉 가두어 기른다는 것은 동물에게 해당하는 말로 흑인 병사를 의동물화 시선으로 처리함으로써 흑인 병사 사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육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길들여짐은 흑인 병사의 반개방 상태로 이어진다. 이것은 실제 동물이 아닌 흑인 병사 사육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흑인 병사 사육은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에 의해 또 다른 감금 상태를 만들어 내고 만다.

나는 일어서서 계단 쪽으로 가서 산돼지 뒷에 손을 대봤으나, 그것은 차갑고 견고해서 내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나는 내가 빠진 함정과, 나를 사로잡은 덫이 믿어지지 않아서 뒷에 치여 서서히 쇠약해서 죽어가는 한 마리 산토끼 같이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흑인 병사를 친구처럼 믿고 있었던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하는 것이 나를 몹시 자책하게 했다.

僕は立ちあがり、階段の所へ行つて、猪罾に触つてみたが、それは冷たく硬く、僕の指と、形をなさない希望の芽とをはねかえした。僕は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僕は自分の落ちこんだどんづまり、自分を捕えた罾が信じられないで、傷ついた足首をしめつける鉄の銚みを見つめている間に衰弱して死んでしまう野兎の仔だった。黒人兵を友人のように信じていたこと、それがいかに愚かしいことだったかというが僕を激しく責めたてる。71)

한계 상황에 놓인, 즉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감지한 흑인 병사는 결국 자신을 포로로 가둔 마을 사람들이 그랬듯 ‘나’를 감금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흑인 병사가 감금되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흑인 병사의 감금은 적군으로서 잡혀 온 포로라는 입장에서 감금이었다. 그러나

71)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30~131

‘나’의 감금은 적병이 아닌 ‘천재적인 가축이자 가족같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졌다 여겼던 흑인 병사의 배신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이 보여주는 예고이즘은, 또 하나의 감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공생의 이미지

오에 문학에 있어서 ‘공생’은 주요 테마이다. 이 주제는 장애인 히카리(光)의 탄생으로 인해 인류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생화된 개념을 지니게 된다. 특히 장애인과의 ‘공생’을 다루고 있는 『개인적 체험』과 원폭에 의해 희생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히로시마 노트(ヒロシマ・ノー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생’의 테마는 장남 히카리의 탄생 이전의 『사육』을 비롯한 몇몇 초기 작품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협의의 공생의 맹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육』 안에서의 공생의 이미지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창고 윗층의 사용하지 않는 좁은 양잠실에서 살고 있었다.

僕らは村の中央にある共同倉庫の二階の、今は使用されない狭い養蚕部屋に住んでいた。⁷²⁾

공동 우물로 내려가는 돌계단에 누워 있던 언청이가 우리 형제를 보자 팔을 흔들며 뛰어왔다.

72)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4

共同水汲場へ降りる石段に竊そべっていた兎口が僕らを見つけて腕を振りながら駈けて来た。73)

오후가 되면 나하고 언청이는 통에 잡아맨 굵은 밧줄을 양쪽에서 조심성 있게 들고 계단을 올라와서, 공동 퇴비장으로 흑인 병사의 똥오줌 섞인, 출렁 소리를 내면서 구린내를 풍기는 걸쭉한 액체를 버리러 가는 것이었다.

午後になると僕と兎口は樽に通した太い縄を両側から注意深くさげて階段を上り、共同堆肥場へ黒人兵の糞と尿のまじった、どぶどぶ音をたてて悪臭をまきちらす濃い液体を棄ててに行くのだ。74)

우리는 뛰어서 부락장의 집으로 가서, 마을의 공동 재산인 연장상자를 헛간에서 꺼내어 지하창고로 옮겼다.

僕らは駈けて部落長の家へ行き、村の共有財産の一つの道具箱を土間からかつぎ出して地下倉へ運んだ。75)

어른들은 부락장 집에서 기르는 부락 공유의 종우가 길을 걸어오면 길가의 푸싯으로 피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흑인병사와 만나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외면할 뿐이었다.

彼らは部落長の家 of 部落共有の種牛が道を来ると草むらに下りてそれを避けるように、僕ら子供たちに囲まれた黒人兵に出逢うと顔をそむけて横に避けるだけなのだった。76)

먼저 공생의 이미지로서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공동 창고, 공동 우물, 공동 퇴비장과 같은 공동 장소와, 공동 연장상자나 부락 공유의 종우와 같은

73)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87

74) 위의 책 p.114

75) 위의 책 pp.117~118

76) 위의 책 p.121

공유물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차별과 멸시 속을 살아가는 가난한 산촌 마을 사람들의 공생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공동 장소와 공유물이란 이미지를 통해 공생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생은 부락장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부락장 집으로 보고하러 가는 아버지와 헤어져, 내가 창고 이층으로 올라가 보니, 아우는 침대 위에 앉은 채로 졸고 있었다.

部落長の家へ報告に行く父と別れ、僕が倉庫の二階へ上って行くと、弟は臺の上に乗ったまま眠りこんでいるのだった。77)

서기의 주장에 부락장은 이 마을에선 흑인 병사를 포로로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반박을 되풀이 했다.

書記の主張に部落長が反駁して、村には黒人兵を捕虜として収容する力がないということをつくりかえた。78)

위 인용문은 흑인 병사의 일로 읍내에 나갔던 아버지가 부락장 집에 보고하러 가는 상황과, 당분간 마을에서 흑인 병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서기의 전달에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마을 대표로서 부락장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락장이란 존재는 마을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수렴, 결정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외된 집단의 공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사육』 안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공생의 이미지는 고장난 서기의 의족을 흑인 병사가 수리하는 장면에서 그려지고 있다.

77)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03

78) 위의 책 p.111

흑인 병사는 포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상의 공기, 여름 저녁나절의 싱싱하고 상쾌한 공기를 큰 콧구멍 하나 가득히 들며 마시며 서기가 하고 있는 의족 시험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모두가 양호했다. 서기는 뛰면서 돌아오더니 주머니에서 호장풀잎으로 만든 담배, 독한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몹시 아픈, 거의 야화 같은 냄새를 내는 엉터리 담배에 불을 붙여서, 키 큰 흑인 병사에게 주었다. 흑인 병사는 그것을 빨려고 하다가 심한 기침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누르고 영겨주춤 앉았다. 서기는 민망스러워서 서글픈 듯이 미소를 띠었으나 우리 아이들은 허리를 잡고 깔깔 웃었다. 흑인 병사는 몸을 일으키고 큰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은 뒤에 그의 육중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검정 윤이 나는 파이프를 꺼내서 서기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서기가 그 선물을 받자 흑인 병사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들에게 황혼의 포도빛 햇별이 넘쳐흘렀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올리고, 미친 듯이 웃으며 그들의 주위에서 와글대는 것이었다.

黒人兵は捕虜になってから始めての地上の空気、夏の夕方のさわやかで水みずしい空気を太い鼻孔いっぱい吸いこみ、書記の試事を熱心に見つめた。すべては良好だった。書記は駈けながら戻って来、ポケットから彼がイタダリの葉で作った煙草、煙が眼にしみると激しく痛む、殆ど野火の匂いを思わせる不格好な煙草に火をつけて、背の高い黒人兵に渡した。黒人兵はそれを吸いこもうとし、激しく咳きこみながら喉を押さえて屈みこんだ当惑して、もの哀しそうな微笑をうかべたが僕ら子供たちは大笑いだった。黒人兵は体を起し、巨きい掌で涙をぬぐい、それから彼の逞しい腰をしめつけている麻地のズボンから黒く光るパイプを取り出すと書記にさし出すのだった。

書記がその贈り物を受けとり、黒人兵が満足そうにうなずき、彼らに夕暮の葡萄色をしたかげりを作る陽ざしがあふれた。僕らは喉が痛みはじめるほど叫びたて、狂気のように笑い、彼らの周りにひしめきあうのだ。79)

여기서는 적군과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흑인 병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기와 그런 서기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흑인 병사가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서기의 의족은 단순히 서기의 한 쪽 발을

79)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p.120~121

대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 즉 어른들이 초래한 전쟁이란 상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기의 의족을 포로로 잡힌 흑인 병사가 수선해 나가는 과정은 전쟁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전쟁, 서기의 의족이 상징하는 어른들의 상처투성이 전쟁을 포로 병사가 치유한다는 것이야 말로 화해와 공생의 메타포라고 생각한다.

흑인 병사를 통한 공생의 이미지는 다음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새처럼 알몸이 되어 흑인 병사의 옷도 벗기자, 샘물 아래 웅덩이로 뛰어들어서 물을 끼얹으면서 소리쳐댔다. 우리는 새로운 착안에 열중해 있었다. 별거벗은 흑인 병사는 깊은 데까지 들어가도 허리가 겨우 수면에 잠길 정도였지만, 그른 우리가 물을 끼얹을 때마다 목이 비틀리는 닭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에 머리를 처박고 숨바꼭질을 했다. 물에 젖은 흑인 병사의 나체는 강렬한 햇빛을 반사시켜서 검정말처럼 빛나는 것이 아름다웠다.

僕らはみんな鳥のように裸になり、黒人兵の服を剥ぎとると、泉の中へ群らがって跳びこみ、水をはねかけあい叫びたてた。僕らは自分たちの新しい思いつきに夢中だった。裸の黒人兵は泉深みまで行っても腰がやっと水面にかくれるほど大きいのが、彼は僕らが水をかけるたびに、絞め殺される鶴のように悲鳴をあげ、水の中に頭を突っこんで、喚声と一緒に水を吐きちらしながら立ちあがるまで溜り続けるのだった。水に濡れ、強い陽ざしを照りかえして、黒人兵の裸は黒い馬のそのように輝き、充実して美しかった。⁸⁰⁾

이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풍의 목욕장면은 황홀감과 범신론적인 생명감에 충만한 세계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생명감은 농후한 물과 빛 속에서 합체되어 아이들도 흑인 병사도 완전한

80) 大江健三郎, 「飼育」,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p.124

일체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생감은 생애의 정점에서 시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영원히 묶이길 바라는 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생은 차별과 멸시 속을 살아가는 가난한 산촌 마을 사람들의 공유물이라는 이미지와, 전쟁의 아픔을 상징하는 서기의 의족을 적군 포로 병사가 치유하는 장면을 화해와 공생의 이미지로 파악함으로써, 좁게는 소외된 산촌 마을 구성원들끼리의 공생을, 넓게는 인종을 뛰어 넘어 범인류적인 공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이상으로 『사육』을 ‘작품의 공간’과 ‘주체와 관계의 양상’, ‘이미지로서 감금과 공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사육』은 전쟁을 그린 단편소설로 태평양 전쟁말기 시코쿠 산촌 마을에 낙하해온 흑인 병사를 마을아이들이 순수함과 사랑을 담아 사육한다는 설정이다. 그 때까지는 ‘먼 곳의 홍수 같았던 전쟁’ 즉,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전쟁이 평화로운 산촌 마을에 침투해옴으로서 전쟁의 가공스러움을 메시지로서 전하고 있다.

시코쿠 서남부의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에는 유년시절의 경험과 자신이 겪은 전쟁을 작품의 주요소재로 쓰고 있다. 오에의 고향 오세 마을은 산간에서 흘러나오는 한줄기 강을 따라 ‘자이’(在)라고 불리는 농림업을 하는 집들이 모여 있고, 산골짜기 중심부에 있는 길을 따라서는 상점이 늘어서 있는 곳이다. 오에의 생가는 이러한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자이’가 아닌 상점가에 속해 있었고, 그의 선조는 두부와 곤약, 술 등을 비롯한 연료를 팔아 생업을 이었다. 이러한 오에의 유년시절 환경은 『사육』 안에서 산촌과 읍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그가 10살에 경험한 전쟁은 작중 전쟁의 황폐함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인다. 즉, 이러한 오에의 유년시절 경험은 작품 안에서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주체와 관계의 양상에서는 시점인물 ‘나’를 주체로 보고, 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마을 사람들과, 흑인 병사, 서기를 들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소외된 공간 속의 소외된 존재로서, 이들에게서 보

이는 소외란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오에의 인간 실존의 문제가 여실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시코쿠 산촌 마을에 흑인 병사가 적병으로 생포되어 옴으로서 주체와 관계들과의 양상은 뚜렷해진다. 흑인 병사 사육을 시작으로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체인 ‘나’는 관계들과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 대가이다. 이러한 대가는 부산물로서 관계의 변질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전쟁과 전쟁이 초래한 상흔들을 순진무구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전함으로서 오에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더 참혹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에서는 오에가 ‘사르트르 소설의 이미지에 관하여’를 동경대학 졸업 논문으로 쓴 점에 착안하여, 이미지로서 감금과 공생을 다루어 보았다.

먼저 감금의 이미지로서 등장하는 것은, 읍내와 격리된 ‘산촌 마을’ 그 자체이다. 이러한 폐쇄상태는 산촌 마을을 하나의 우리로 보기에 충분하고, 폐쇄된 산촌 마을 안에 폐쇄된 개인이라는 이중적 폐쇄 세계는 감금의 이미지를 더 확고히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이 보여주는 예고이즘은, ‘나’를 인질로 잡아 창고에 가둠으로서 또 하나의 감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공생의 이미지로서는 공동 창고, 공동 우물, 공동 퇴비장과 같은 공동 장소와, 공동 연장상자나 부락 공유의 종우와 같은 공유물을 들 수 있었다. 이는 차별과 멸시 속을 살아가는 가난한 산촌 마을 사람들의 공생을 작가가 공유물이란 이미지를 통해 그려낸 것이다. 오에 문학의 공생은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인류에까지 고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의 공생의 이

미지는 오에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공생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생은 서기의 의족을 수리 과정에서도 보인다. 여기서 의족은 단순히 서기의 한 쪽 발을 대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 즉, 어른들이 초래한 전쟁이란 상처의 상징이다.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흑인 병사가 치유하는 것을 작가는 인류공동체로서 화해를 담은 공생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좁게는 소외된 산촌 마을 구성원들끼리의 공생을, 넓게는 인종을 뛰어 넘어 범인류적인 공생을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사육』 안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 이전의 한 공동체로서, 일본작가이기 이전에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오에의 반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텍스트

大江健三郎, 『死者の奢り飼育』, 新潮文庫, 2005

2. 단행본

임은규, 『いままでの日本文学史』, 세종출판사, 2004

한국일어일문학회, 『나츠메소세키에서 무라카미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정인문, 『일본 근현대 작가연구』, 제이앤씨, 2002

고영자, 『오에 겐자부로-신전후과의 문학게임』,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오상원 역, 오에 겐자부로 저, 『사육·짓밟히는 싹들』, 친구미디어, 1994

이정자 역, 오에 겐자부로 저, 『사육·짓밟히는 싹들』, 동화서적, 1994

가스통 바슐라르 저, 이가림 옮김,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9

大隈 満 外, 『大江健三郎研究四国の森と文学的想像力』, 리-ブル出版, 2004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往復書簡』, 朝日新聞社, 2004

島村 輝, 『日本文学研究論文集45 大江健三郎』, 若草書房, 1998

文芸研究プロジェ, 『よくわかる大江健三郎』, ジャパン・ミックス, 1994

一条孝夫, 『大江健三郎-その文学世界と背景』, 和泉書院, 1997

黒古一夫, 『大江健三郎-森の思想と行き方の原理』, 彩流社, 1989

渡辺美紀, 『大江健三郎文学海外の評価』, 創林社, 1987

大江健三郎, 「戦後世代のイメージ」, 『厳粛な網渡り』, 文芸春秋, 1969

松原新一, 『大江健三郎の世界』, 講談社, 1967

3. 참고논문

- 이금주, 「大江健三郎 문학연구-『飼育』, 『芽むしり仔撃ち』의 작품구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류수정, 「오에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사육』(飼育)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이명아, 「공간에 나타난 소외심리의 표현 연구」, 서울 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김영은, 「『사육』론-다양한 힘의 논리 읽기-」, 『日本語文学11』, 일본어 문학회, 2001
- 김낙길, 「大江健三郎의 初期作品에 나타난 現實 認識에 대한 考察」,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소명선, 「大江健三郎의 初期作品안에 설정된 荒廢狀況 考察」,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趙千枝子, 「大江健三郎『飼育』における「世界」について-主人公「僕」を中心として」, 『日本学報26』, 한국일본학회, 1991

4. 잡지 및 기타

- 「いま大江健三郎の小説を読む」, 『国文学』, 学灯社, 1999, 2月臨時増刊号
-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0,
- 新村 出, 「広辞苑」第四版, 岩波書店, 1991, p.1090

<Abstract>

- Oe kenjabro's essay 'breeding' -
With priority given to space, an aspect of relation, image

Moon Ho-suk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Nan-hee

Oe kenjabro, who is the third Nobel prize winner for literature in the East, has created the unique literature world with the remarkable intellectual pilgrimage and the overflowing poetic imagination. This paper is designed for considering 'breeding' that Oe experienced the Pacific war wrote with the sense of a postwar generation writer, focusing on 'space of work', 'the aspect of subject and relation' and 'imprisonment and symbiosis as an image'.

First, this divided 'space of work' into 'physical space' and 'psychological space'. Oe who was born and brought up in a thickly-wooded village in southwestern of Shikoku uses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and the war that he experienced as a main material of several works. This environment of childhood is described as physical space such as 'woods', 'a mountain village' and 'a town' in 'breeding'. Also, the lost battle that he experienced at the age of 10 constitutes psychological space by describing the devastation of war with the sight of children.

Second, 'the aspect of relation' shows that 'I' am growing internall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through several aspects of relations like villagers, a Negro soldier and a clerk with a Negro soldier appearing and the matter developing. However, this is not a simple acquirement but a compensation that experienced a harsh war. This compensation results in deterioration of relation and death. Thus, I think that Oe could intend to describe the war more brutally by conveying the scars of war with the eye of a child.

Finally, in imprisonment and symbiosis as an image I aimed at suggesting that the imag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Oe's literature because Oe has written 'about an image of Sartre's novel as a graduation thesis in Tokyo university. The image of imprisonment is considered through the double world of a closed individual in the closed mountain village. The image of symbiosis can be confirmed that it is symbiosis between the mountain villagers narrowly and it is pan-mankind symbiosis widely in 'breeding'.

Throughout this, I could read the Oe's antiwar message as a community before a nation and a universal human before a Japanese writer.

